

‘품소품소 강진향교’ 입소문 타고 인기몰이

강진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품소 품소 강진향교’가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강진군과 인근 지역에서 호평받고 있다.

인근의 곡성군, 함평군, 나주시 지역아동센터에 이어 지난 18일에는 영암군의 ‘삼호읍 청소년문화의 집’ 학생들 및 인솔 교사 40명이 강진향교를 방문해 ‘강진에는 고려청자가 있어요’와 ‘달려라 하마비까지~ 런닝 말!’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현재 ‘품소품소 강진향교’의 대표 프로그램은 ‘다산인(人·in) 강진향교’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강진의 특산품을 교육과 체험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강진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다산황차 차례체험’, ‘다산살롱’, ‘실사구시 진로탐색’ 세 분야로 운영된다.

‘다산황차 차례체험’은 다산과 강진 차와의 인연에 대한 스토리를 개발·응용해 강진 야생차와 청자로

만든 다기를 활용해 진행된다. 강진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한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생애를 짚어보며 다산황차에 대해 배운다.

‘다산살롱’에서는 청자 다기에서부터 시작해 천년비색 고려청자 산고장인 강진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지역의 예인에 대해 조명하는 ‘향교에서 만난 함동정월’도 있다. 기생이었으나 질곡의 삶을 이겨내고 가야금 산조 명인의 자리에 오른 병영 출신 국가무형문화재 함동정월에 대해 알아본다.

이 밖에도 문화재 이용 방법과 생활 속 전통 예절을 배우는 ‘흥미진진 인의예지’와 고유의 전통 놀이를 알리기 위한 ‘놀자! 놀자! 놀이가 밥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과 진로 특강인 ‘실사구시 진로탐색’ 등 교육으로 소통하는 강진향교로 다시 서고자 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엿보인다. /박종욱 기자



강진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품소품소 강진향교’가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강진군과 인근 지역에서 호평받고 있다. 지난 18일 영암군의 ‘삼호읍 청소년문화의 집’ 학생들 및 인솔 교사 40명이 강진향교를 방문해 ‘강진에는 고려청자가 있어요’, ‘달려라 하마비까지~ 런닝 말!’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강진군 제공

무안, 공약 확정 보고회 개최

무안군(군수 김산)은 더 큰 무안을 만들기 위한 7개 분야 100개 공약을 확정하고 지난 22일 공약 확정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전체 실단과소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항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한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민선8기 ‘무안을 더 크게, 내 삶을 더 높게’라는 슬로건 아래 ▲ 젊은 도시 경제수도 무안 ▲ 모두 더 잘사는 상생 무안 ▲ 맛과 멋 힐링 도시 무안 ▲ 과학영농 선구도시 무안 ▲ 안전하고 편안한 삶터 무안 ▲ 교육받기 좋은 도시 무안 ▲ 화합 소통 행정수도 무안 의 7대 군정 방침에 맞춰 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남본부 유치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남악지구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오룡지구 스포츠공원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영산강권역 도자문화 플랫폼 구축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고민재 기자

목포, 독거노인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1일 2회 전화 모니터링해 건강 상태 확인 등

60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실시하는 목포시의 건강모니터링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그동안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거나 본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등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고령의 확진 어르신에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지난 8일부터 보건소 재택치료팀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60세 이상 독거노인 확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격리기간 동안 1일 2회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60세 이상 확진자들이 집 근처 원스톱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병상 배정 등 적기의 병원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도 적극 안내해 독거노인의 중증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방문보건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등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방문 관리사업과 고독사 지킴이 사업을 연계해 관리 중이다.

실제로 지난 9일에는 60세 이상 독거노인 확진자로 재택치료 중인 이모(64세)씨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던 중 기침에서 피가 함께 나온다는 얘기를 접하고 신속한 병상 배정과 입원 조치로 위기 상황을 넘겼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한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응급상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거노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이상의 함평군수, 이장 소통간담회 개최

이상의 함평군수가 주민과 행정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 이장들과 소통·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장과의 소통간담회’가 이날 오전 함평읍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9개 읍·면을 순회해 개최된다.

소통간담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마을 이장들과 함께 민선8기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읍·면별 맞춤형

공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23일 함평읍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상의 군수와 40여 명의 이장들이 참석해 ‘함평읍 주민 자치회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

으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이장 소통간담회는 읍면 현장을 찾아 이장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공유의 시간을 통해 함평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각 읍면별 장기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Y마트, 지역농산물 판로확보 협약

영암군(군수 우승희)에서는 최근 광주·전남 대형 유통기업인 Y-마트물류(회장 김성진)와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승희 군수와 김성진 Y-마트물류 회장, 나병수 재광금정면 향우회장, 임채상 물류본부장 그리고 실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농특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가졌다.

군에서는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직거래를 확대해 대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특산물을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마련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 안전하고 신선한 영암산 농특산물 우선구매 확대 ▲ 지속 가능한 농업유통 발전 ▲ 고품질 우수 농산물 및 차별화된 특산물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 농산물 생산지도와 판로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승희 군수는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신안, 갯년기 여성 체력측정

국민체력100 신안체력인증센터(센터장 김재원)는 신안군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통합건강증진사업 ‘갯년기 골(骨)기퍼(깊어) 건강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력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갯년기 골(骨)기퍼(깊어) 건강교실’은 신안군보건소에서 갯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안체력인증센터는 신안군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 체력측정을 실시한다. 24일부터는 사후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성인기 체력 측정 항목은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을, 어르신기 항목은 ▲상지근력 ▲하지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평형성 ▲협응력을 측정한다. /장홍근 기자

